



## 프란치스코적 동반을 향한 부르심

December 11, 2025

사랑하는 재속 프란치스코회 형제자매 여러분,

레오 14 세 교황님, 주교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의 뜻에 따라,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은 이 시기에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국 각지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들로부터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소지하고 다니거나 공공장소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지역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중단했고, 또 다른 회원들은 교회나 법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직접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교회의 입장은 11 월 12 일에 발표된 미국 주교회의의 "특별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슬픔, 애도, 실망, 우려뿐 아니라 격려, 희망,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민감한 상황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주교들은 "이민자든 법 집행관이든 상관없이 비인간적인 언행과 폭력이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인간 존엄성과 국가 안보는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회칙(제 15 조)은 우리에게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 대화를 통해 일치와 형제적 화합을 이루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제 19 조). OFS 회원들은 여러 지역에서 법률 지원, 교육, 가족 지원, 기부, 식량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형제회 차원에서 JPIC에 기반한 활동을 추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지역 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회원들이 사도직 활동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OFM 과달루페 성모 관구의 JPIC 사무실에는 제안된 활동 목록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USCCB)는 평신도 가톨릭 신자들에게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위한 지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본 개혁의 주요 내용은 이곳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당한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재확립되어야 합니다. 교회법에도 명시된 이 근본적인 권리를 유보하는 것은 정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인종"이 이민 단속의 "관련 요소"로 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우리 교리서에 따르면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은 거룩하고 예언적인 사명입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더 나은 대화와 장기적인 해결책을 위해 마음이 변화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하느님,

다른 나라에서 온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주시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며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낯선 이들을 환영하라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집트에서 이주민으로 사셨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며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미국 재속 프란치스코회 전국 형제회 드림

증인으로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프란치스코 재속회 회칙 제 6 조)